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

2015. 8. 31(월) 14:00 ~ 17:0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

모시는 글

지난 5월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이후 대한민국은 신종 감염병의 공포로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낮은 감염병의 출현 앞에 정부의 대응은 미숙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오히려 질병을 퍼뜨리는 진원지가 되었고 통제를 벗어난 확산 조짐은 국가경제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위기’라고 불릴만한 이 가공할만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허술한 방역체계, 부실한 병원 내 감염병관리 등 이번 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과 처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처방들이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위기가 남긴 윤리적 이슈들이 그것입니다.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초기부터 피해자로 여겨지기 보다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격리되었고 사망한 가족의 장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일부 의심환자들은 시민적 덕성이 부족한 이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염의 공포와 격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의심환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격리하는데 바빴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환자, 가족, 일반시민들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메르스 위기가 남긴 이런 윤리적 과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현장에서 보도했던 기자, 정신의학과와 사회학자를 초청해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어떤 윤리적 고려가 필요할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도는 윤리적으로 균형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숙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메르스 위기의 교훈을 찾기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이윤성

프로그램

14:00 ~ 14:10	인사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14:10 ~ 14:40	발 제 1 : 감염병 환자의 인권 조준성 (국립의료원 · 호흡기센터장)
14:40 ~ 15:10	발 제 2 : 메르스 유행 보도에서 빠진 것들 김양중 (한겨레신문 · 기자)
15:10 ~ 15:40	발 제 3 :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박한선 (성안드레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과장)
15:40 ~ 16:10	발 제 4 : 메르스와 위험 소통 김은성 (경희대 사회학과 · 교수)
16:10 ~ 16:30	휴 식
16:30 ~ 17:10	자유 토론

오시는 길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Tel : 02-737-8958 E-mail : ddolog@naver.com

[버스 이용시]

1. 혜화역, 서울대학교 병원입구 [01221]
- 간선 109, 273, 601, N16
- 지선 2112, 종로08, 종로07, 종로12
2.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01220]
- 간선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60, 162, 273, 301, 710, N16
- 지선 2112, 종로07, 종로08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